

1970~1980년대 북한의 병자호란 인식과 역사서술

장정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ilovelevis@korea.ac.kr

- I. 머리말
 - II. 체제성립기 북한의 병자호란 관련 서술 검토
 - III. 1970~1980년대의 서술 변화와 병자호란 인식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9762).

I. 머리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시대 연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두 전쟁은 '양란(兩亂)'이라 불리면서 조선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전환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국내외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전후 시기와는 인과적인 설명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한과 북한의 학계가 공유하는 항쟁사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1950년대 양측 학계는 모두 대외항쟁, 국난극복의 틀 안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연구했다.¹ 일제의 강점과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외세의 영향력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사학에서 주장한 한민족의 타율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한국의 자주적 면모를 확인하고 외세의 침략에 대응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자 했기 때문이다.² 대외항쟁사의 서술이 승전 위주로 이루어진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해석 방식이나 서술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장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조선시대 대외관계 관련 서술은 여전히 '반침략투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³ 이 점은 대외관계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며 더 이상 대외항쟁의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남한과의 두드러진 차이라고 할 수

1 국방부 정훈부 편, 『대외항쟁사』(국방부 정훈부, 1954); 金鍾權, 『國難史概觀』(明文堂, 1957); 박시형, 『조선중세사』(국립출판사, 1956); 양형섭,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에서의 인민의병투쟁』(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57).

2 김순자, 「북한의 대외관계 연구 I: 전근대」, 『북한의 역사학(1)』(국사편찬위원회, 2002), 496쪽.

3 박영해·문병우·김재홍,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리조편)』(사회과학출판사, 2010).

있다.⁴ 북한에서는 지배층의 역할을 축소 내지 도외시하고 인민의 투쟁을 크게 강조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임진왜란·병자호란⁵ 관련 인식이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북한 학계의 대외관계 분야 서술이 인민 주도의 반침략투쟁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정두희는 대외항쟁사가 농민전쟁과 더불어 북한의 역사서술에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라면서 항쟁의 주체로 인민을 설정했다고 하였다.⁶ 김순자는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사를 강조하는 주체사관이 북한 역사 인식론임을 강조하면서 반침략투쟁사가 북한 역사학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⁷ 조성훈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항쟁과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족국가 개념이 형성되지 못한 전근대시기에 ‘조국’에 대한 인식을 전면에 등장시켰다고 주장했다.⁸ 이를 통해 북한 역사서술에 보이는 반외세, 반침략의

4 남한의 한국사 개설서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한 데 묶은 항쟁사적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이라는 부제를 가진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9(국사편찬위원회, 2003)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외관계 연구의 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이와 같은 서술에서는 벗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된다.

5 북한에서는 임진왜란을 ‘임진조국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임진왜란으로 통일하되, 필요시에만 임진조국전쟁이라고 표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병자호란은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관련 사건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6 鄭杜熙, 「북한의 역사서술에 나타난 조선왕조의 유산」, 『東亞研究』 34호(1997), 163~165쪽.

7 김순자, 앞의 책(2002), 498~499쪽; 김순자, 「북한의 전근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북한의 역사 만들기』(푸른역사, 2003), 113~122쪽.

8 조성훈, 「북한의 고종세기 전쟁사 인식」,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4)』(국사편찬위원회, 2004), 148쪽.

항쟁사적 관점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 그 안에서 개별 저술의 내용 분석도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외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병자호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조선통사(상)』(1977)과 『조선전사』(1980)의 서술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조원래의 글이 있지만⁹ 병자호란에 관한 북한의 역사서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통사(상)』의 조선시대 대외항쟁을 분석한 정두희도 임진왜란을 비중 있게 제시했을 뿐이고 병자호란 관련 서술은 몹시 소략하다.¹⁰ 전근대 북한의 대외항쟁사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김순자의 연구에서도 임진왜란과 달리 병자호란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¹¹ 이는 북한의 연구 자체가 수·당에 대한 고구려의 항전, 거란·몽고 등에 대한 고려왕조의 항전 및 조선시대의 ‘임진조국전쟁’에 집중된 데 기인한다.¹² 임진왜란이 외세의 침략과 인민의 항쟁이라는 구도로 서술되기 용이한 주제인 데 반해, 병자호란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병자호란 또한 체제성립기에 해당하는 1950~1960년대의 서술과 주체사관이 반영된 1970년대 이후의 그것이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만주족에 대한 패배와 신속(臣屬)이라는 정치·외교적 결과를 다루기보다는 인민의 영웅적 항쟁을 적극적으로 서술하는 동시에 그러한 노력마저 봉건지배층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응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는 인식이 박제화 되었다.¹³ 병자호란 서술은 항쟁

9 조원래, 「북한의 임진왜란사 연구와 주체사관」,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아세아문화사, 2005), 38~47쪽.

10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 개의 역사학: 개설서로 본 남북한의 역사학』(소나무, 2001), 204~206쪽.

11 김순자, 앞의 책(2002), 517쪽.

12 최근 고대와 중세의 전근대 대외관계사 서술이 검토된 바 있다(박찬홍, 「북한 〈조선력사〉(상)(1963) 교과서의 대외관계사 서술 검토」, 『白山學報』 119호(2021)).

사의 틀 안에 고립되었고, 서술의 비중은 줄었지만 인민의 주체적 투쟁을 강조하는 의도는 도리어 선명해졌다.

이 글에서는 주체사관이 확립된 시기(1960년대 후반~1980년대) 병자호란에 관한 북한의 역사 서술을 검토한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조선통사(상)』(1977)과 『조선전사』 10권(1980)이다. 또한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 1956년 및 1962년에 출간된 『조선통사(상)』, 1956년에 출간된 박시형의 『조선중세사(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몇 편의 역사교과서도 참고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체제성립기 북한의 병자호란 관련 서술을 검토하고, III장에서 주체사관의 영향을 받은 이후 해당 분야의 서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상을 추적해 보겠다. 이를 통해서 1970~1980년대 북한 역사서술 및 역사교육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역사인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체제성립기 북한의 병자호란 관련 서술 검토

1956년 북한의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출간한 『조선통사』의 상권 제13

-
- 13 2010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된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리조편)』에는 병자호란 부분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전쟁의 발발 경위나 전개과정 등의 서술이 대폭 보강되었다.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신축성 있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반정 이후 인조 정권의 親明排金 정책을 무책임한 것으로 기술한 부분은 남한의 주류적 해석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봉건통치배들이 빈말공부만 하면서 국방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우리 인민은 보다 어려운 형편에서 후금의 침략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320쪽)라고 평가하거나, ‘봉건통치배’들이 침략자들과 강화를 체결한 것을 인민들의 투쟁과 대비시킨 서술 구도는 여전히(352~362쪽). 물론 인민들의 투쟁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장에는 병자호란 관련 서술이 보인다.¹⁴ 임진왜란(12장)과는 달리 별도의 장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1627년 및 1636년 녀진의 침입’이라는 이름으로 ‘17세기 중엽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장성’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¹⁵ 본 장은 총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은 ‘17세기 초의 경제 사회 형편’, 제2절은 ‘1627년~1636년 녀진의 침입’, 제3절은 ‘17세기 중엽 이후 농업의 복구 발전과 상품 화폐 경제의 장성’이다. 이 가운데 호란과 관련된 서술은 1~2절로 총 20쪽이다.

제1절은 호란의 전사(前史)에 가까우며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사회 경제적 추이와 인조반정 전후의 정치적 사정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서술 방향은 동시기 남한의 역사서술과 대동소이하며 광해군의 외교정책·당쟁(黨爭)과 반정의 배경, 이괄의 반란(1624)·반정 주도 세력의 군영 창설 등의 제한적 군사정책을 서술했다.¹⁶ 이러한 혼란상이 여진의 침입을 용이하게 했다고 한 점은 남북한의 공통된 이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봉건지배층의 경제적 수탈이 가중되어 인민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호란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12쪽에 걸친 제2절에서 다루고 있다. 제2절은 다시 ‘17세기 초의 대륙 정세’, ‘1627년 후금군의 침입과 정봉수 등의 의병 투쟁’, ‘1636년 청군의 침입’ 등으로 세분화되어 서술되었다.

먼저 임진왜란 시기에 건주여진(建州女眞)의 누르하치가 굴기할 배경과 그의 교섭 시도(1595), 신충일(申忠一)의 파견을 통한 조선의 호응(1596) 등을 다루었다. 이 같은 흐름은 남한 학계의 서술과 유사하지만, 신충일의

14 『조선통사』의 간행에 관해서는 이준성, 「1950~60년대 <조선통사(상)> 간행과 북·소 역사학계 갈등」, 『사학연구』 137호(2020), 19쪽.

1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조선통사(상)』(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1956), 411~430쪽.

16 전반적으로 ‘호란 전의 정세’라는 남한의 한국사 개설서와 유사한 서술이다.

파견을 두고 누르하치의 통호(通好) 요청에 대한 보답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정탐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서술한 점이 눈에 띈다. 후금의 건국(1616), 심하전역(1619)의 출병, 1621~1622년에 걸친 후금의 요동공략 등의 '청조흥기사' 서술은 현재까지 통용되는 주류적 해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모문룡의 조선 입국이나 인조반정 이후의 교섭 단절이 후금을 자극했다는 점 역시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라는 통설과 비슷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묘호란을 서술했다. 본서의 정묘호란 서술은 조선과 후금의 전투 및 교섭 과정을 간략히 다룬 반면, 인민들이 주도한 항전의 색채는 선명하게 내세웠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금군의 침입과 광산(능한산성)·안주 등 청천강 이북 주요 지역의 '강점(強占)'에 이르는 전쟁 초기의 전개 양상은 패전이 아닌, 각 지역의 항전을 적극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아울러 후금군에 의한 평양·황주의 무혈점령에 대해서는 도주한 관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봉건지배층의 무책임한 대응과 인민의 적극적 역할을 뚜렷하게 대비시켰던 것이다.

후금과의 화친에 대해서도 국왕 인조와 그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수도를 내버리고 강화도로 입보하는 '비굴'한 자세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동안(1~2월) 각지의 인민들이 쫓겨하여 후금군의 배후를 집요하게 공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게 했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나 구체적으로 거론된 정봉수나 이립의 의병 항쟁이 3월 이후에 두드러졌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의 의병 항쟁은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가량 진행되었는데, 이는 개전부터 화친에 이르는 기간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

17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앞의 책(1956), 424쪽.

로 서술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관계의 오류나 조선·후금의 화친 교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본 절은 정묘호란을 무책임한 지배층의 화친과 ‘애국인민’의 항쟁으로 대비시켜 서술한 특징이 있지만, 선명한 선악구도로 인해 당대의 상황을 단순화시킨 문제가 있다. 또 병자호란 발발까지의 10년을 전혀 다루지 않은 채, ‘봉건통치배’들이 군비강화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서술로 대신했다.¹⁸ 결국 병자호란의 발발 책임을 조선 지배층에게 돌리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병자호란에 관한 서술이다. 본 소설의 서술은 청태종 홍타이지의 칭제(稱帝)부터 시작된다. 조선이 칭제에 동의 내지 동참하기를 거부한 것을 두고, “조선 정부가 취한 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 리익에 비추어 보든지 1627년 화평 조약의 정신과 조문에 비추어 보든지 실로 정당한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봉건 지배층의 대응이 인민들을 침략자들의 손아귀로 내몰았다면서도 대의에 부합하는 행위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일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설명은 병자호란을 청군의 ‘침입’과 조선 인민의 의로운 저항이라 규정하려는 복선으로 해석된다.¹⁹

병자호란에 대한 서술 자체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전쟁의 흐름에 관해서는 남한산성에서 출격한 조선군이 청군을 공격한 몇 사례를 제시했을 뿐이고, 국왕을 위해 모여든 제도근왕군(諸道勤王軍)의 활동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²⁰ 남한산성과 청군 진영의 화친 교섭에는 전혀 지면을 할애하지

18 위의 책, 425쪽.

19 위의 책, 426쪽.

20 위의 책, 427~428쪽. 근왕군 활동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서술했다. “평안도, 황해도 및 강원도 지방의 인민들은 우리 군대들과 협력하여 적의 배후를 공격하고 마침내 남한산성을 구원하려 하였으나 매국적 통치배들이 곧 투항하고 말았으므로 그들의 애국적 항전도 중국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429쪽) 이러한 서술은 경상·전라·충청도 군대의 근왕 활동을 아예 무시한 것이며, 경상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함경도 근왕군의 활동도 다루지 않았다. 평안·황해·강원도의

않고 강화도의 함락과 인조의 출성 항복으로 단순하게 서술한 점도 특징이다. “국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배들의 무능과 안일성과 그들의 매국적 투항은 조국과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 왔다.”라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²¹ 서술의 초점이 지배층에 대한 비난과 인민들의 항전에 두어졌기 때문이다.

본 절에는 호란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당시 조선 인민은 비록 봉건 정권이나마 튼튼한 정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인민들의 헌신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매국적 통치배들의 배신적 투항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병자호란을 패전으로 규정한 점은 이후의 연구에서 인민의 승리로 과대포장하는 것과는 다른 담백한 내용이지만, 인민들의 투철한 항전 활동이 지배층의 ‘매국적’ 행위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고 평가한 점은 기억해둘 만하다.

박시형의 『조선중세사』(1956)에서는 병자호란이 “1627년 및 1636년 청국 군대의 침입과 전후 시기의 사회-경제적 형편”이라는 별도의 장(6장)으로 서술되었다.²² 분량은 좀 더 많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조선통사』와 유사하다. 총 3개 절로 구성된 6장은 1절이 사회경제적 형편에 해당하고, 3절은 상품 화폐 경제 및 대동법을 다룬다. 병자호란에 관한 내용은 2절 (“1627년 및 1636~1637년 청국(후금-後金) 군대의 침입”)에 확인된다.

2절은 다시 4개의 소절로 구성된다. 첫 번째 소절은 후금의 흥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통사』와 다른 점은 여진의 정세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한 부분이다. 아울러 함경감사였던 장만(張晩)의 장계를 거론함으로써 조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1609년 이후 조선과 명이 건주여진의

근왕 활동 역시 도원수·부원수 및 해당 도의 병마절도사들이 직접 이끌었지만 철저하게 ‘인민’을 주체로 설정하여 서술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21 위의 책, 428~429쪽.

22 박시형, 『조선중세사(하)』(국립출판사, 1956), 243~274쪽.

흥기에 대한 협력체제를 갖추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²³ 심하전역에 대한 서술도 좀 더 구체적이데, 전체적으로 이나바 이와키치와 이인영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⁴ 여기서도 광해군대의 내외정세 및 당쟁 그리고 인조반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정의 의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내부적 모순은 여전했다고 서술했다. 이괄의 반란을 서술하면서 그에게 동조했던 한명련의 아들 한윤이 후금으로 도주하여 조선 침입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서술도 주목된다.²⁵

두 번째 소절에서는 정묘호란을 다루었다. 『조선통사』에서 정봉수의 항전을 다루었다면, 본서는 철산 방면의 의병 투쟁을 소재목에서부터 제시했다. 또 침입의 원인을 배후의 위협 제거뿐만 아니라 여진 사회의 경제적 필요로 본 점, 조선과 모문룡의 동맹관계 분쇄가 궁극적 목표였다고 한 점을 특기할 만하다.²⁶ 그밖에 능한산성 및 안주 군민들의 항전을 강조한 것은 『조선통사』와 유사하다. 본 소절에서는 후금의 손쉬운 진격을 설명하면서 중앙군의 강화에 집중된 지배층의 군사정책을 꼬집었다. 『조선통사』에서도 일부 서술된 내용이나, 그보다 좀 더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울러 모문룡의 행패가 조선과 명의 협력체제를 오히려 손상시켰던 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건주여진(후금)에 대한 양국의 협력체제와 현실 군사정책에서의 괴리를 설명한 것은 『조선통사』의 이분법적 선악구도에 비해 좀 더 진일보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정묘호란 당시 조선 조정의 대응 및 후금과의 화친 교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도 『조선통사』와의 차이점이다. 물론 중간에 인민들의 항쟁 관련

23 위의 책, 257~259쪽.

24 稻葉岩吉,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大阪屋號書店, 1933); 李仁榮,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乙酉文化社, 1954).

25 박시형, 앞의 책, 261쪽.

26 위의 책, 262쪽.

서술을 삽입한 것은 『조선통사』와 유사하지만 조정 차원의 대책을 도외시한 점과는 분명 다르다. 본서에서도 정봉수 등 의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서술했지만, 인민들의 항쟁과 함께 조선과 후금의 교섭도 제한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소절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통사』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10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본서 역시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후금의 국교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사회-경제 형편'이라는 소절을 설정하여 사회 경제적 추이를 설명함과 동시에 군사정책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보다 매끄럽게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고 있다.²⁷

병자호란을 다룬 네 번째 소절에서는 조선과 후금의 국교를 일부 소개했다. 다만, 외교문서의 교환이나 사신 파견 등 주로 정치적 부분보다는 개시(開市)나 예폐(禮幣/歲幣) 등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였다. 또 1635년 인열왕후(仁烈王后)의 국상에 흉타이지가 마푸타를 파견하여 조문하게 했던 점, 이때 잉골다이가 들어와 칭제 사실을 전한 것 등도 다루었다.²⁸ 이후 조선이 후금과의 절화(絶和)를 결심한 점,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론(主和論)의 대두 등을 설명하는 등 확실히 『조선통사』 보다는 전문적인 서술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지방 근왕군의 활동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했으며, 군신관계를 맺은 뒤 출성 항복하고 척화신(斥和臣)을 압송한 사실, 명의 장수 진홍범(陳洪範)의

27 위의 책, 267~269쪽.

28 위의 책, 270~271쪽. 한 가지 오류가 있다면, “형제의 관계에서 군신의 관계로 고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다소 결과론적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잉골다이가 마푸타와는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여 칭제 사실을 알리고 동참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신관계의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선이 칭제의 인정을 稱臣과 동일한 행위로 인식하여 격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나, 잉골다이가 군신관계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활동 등을 다루었다.²⁹ 이는 현재의 병자호란 서술과 견주어 보아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밀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결론에 이르러서는 “매국적 통치배들이 이내 투항하고 말았으므로 그들[의병-필자]의 애국적 항전도 종국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 해산하게 되었다.” 하여 봉건 지배층에 대한 비난 및 인민의 항전을 중시하는 기초적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1962년에는 『조선통사(상)』의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본서는 1956년판에 비해 내용이 풍부해지고 정제되었다. 병자호란 분야의 서술은 19장 “1627년 및 1636년 너진의 침입을 반대한 투쟁, 17세기 중엽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으로 설정되었으나, 여진 사회의 변화와 후금의 흥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서술된 점을 제외하면 내용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마저 『조선중세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략한 수준이며, 임진왜란의 서술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위축된 감마저 없지 않다.

『조선통사』(1962)의 관련 서술을 살펴보자.³⁰ 먼저 정묘호란 관련 서술은 정봉수나 이립 등 청천강 이북 지역 의병부대 활동이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한다. 이 점은 이전에 비해서 서술은 좀 더 정제되었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은 동일하다. 조선과 후금이 화평조약을 체결하여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한 줄 정도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항쟁사에 집중하다보니 10년간의 교류는 병자호란 발발 이전의 ‘과도기’로 설정된 셈이다.

병자호란 서술 역시도 큰 차이는 없다.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 일부 보강되었으나 봉건 통치배들의 안일함이 침략자에 대한 무방

29 위의 책, 272~273쪽.

30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역사 연구소, 『조선통사(상)』(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역사 연구소, 1962), 645~657쪽.

비 상태로 이어졌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병자호란 당시의 전투에 관해서도 남한산성의 수비군이 벌인 소규모 작전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이전본과 다를 바 없고 도리어 소략해졌다. 근왕군에 관해서는 “모두 도중에서 진격을 저지 당하고 지체하게 되니 남한산성은 완전히 고립 무원하게 되었다.”는 한 줄로만 서술했다. 삼전도의 항복 직전 조선과 청이 벌인 장기간의 교섭에 대한 서술은 전무하지만, “왕이나 대신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영예와 운명보다도 자기의 일신과 가족들이 더욱 소중하였던 것이다.”라는 비난을 빼놓지 않았다.³¹ 결론도 “국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의 투항은 청나라 침략자를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쫓겨난 의병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조선통사』(1956), 『조선중세사』(1956), 『조선통사』(1962)의 서술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전 북한의 병자호란 관련 서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임진조국전쟁’에 비해 분량이 소략하다는 점이다. 전란의 발생 배경이나 전개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서술은 모두 빈약하다. 『조선중세사』의 경우, 발생의 배경 부분에서 여진 사회의 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도 보다 풍부하게 서술했다. 이는 만주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적극 참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들의 자발적이고 애국적인 반침략투쟁을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이 부분은 남한의 개설서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남한의 개설서에는 거의 실리지 않은 정묘호란 당시 정봉수 등의 항쟁을 매우 자세히 다루고 소재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호란 연구가 왜란에 비해 미진했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인민들의 체계적인 저항이 상대적

31 위의 책, 655쪽.

으로 적었던 것이다.³² 이순신이 이끈 수군의 활약을 중요하게 다룬 임진왜란과 달리 병자호란 당시 지배층의 역할을 거의 다루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줄고 의병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는 병자호란의 결과를 두고 패전, 신속(臣屬) 그리고 그에 따른 조선과 청의 관계 재편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통사』 등은 모두 지배층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비난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침략자에게 격렬히 저항하던 애국인민들에 대한 배신, 그리고 매국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적 선악구도 그리고 전후 대외관계와의 유기적인 분석이 결여됨으로써 항쟁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Ⅲ. 1970~1980년대의 서술 변화와 병자호란 인식

본 장에서는 1977년에 출간된 『조선통사(상)』과 1980년에 출간된 『조선전사』 10권의 호란 부분을 검토한다.³³ 전자는 북한의 대표적인 개설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의 ‘도서출판 오월’에서 출판되기도 했다.³⁴ 이 책 역시 1956년 및 1962년에 출간된 『조선통사(상)』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호란 분야는 오히려 축소되어 있기도 하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

-
- 32 최근 병자호란 당시 지방군의 근왕활동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의병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은 대부분의 병력이 束伍軍에 편제되어 감사·병사·營將의 지휘를 받으며 남한산성으로 집결했기 때문이다(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호(2016), 202쪽 각주124 참조).
- 3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통사(상)』(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10(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34 정두희, 앞의 책, 181~183쪽.

해당 분야의 연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은 이 시기에 형성된 주체사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병자호란에 대한 역사인식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⁵ 후자의 경우에는 주체사관이 반영된 역사인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된 성과이다. 따라서 이 두 책은 1960년대의 연구 성과가 주체사관에 맞추어 기술된 것이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걸친 북한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텍스트일 것이다.

이에 앞서 1972년에 출간된 고급학교 1학년용 역사교과서 『조선력사(고급1)』을 검토해보자. 이 책에서 병자호란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지 않고,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제8장 “1592~1598년 전쟁”의 제3절에 부기되었다.³⁶ 3절의 제목이 “전쟁의 피해와 그 후의 대외관계”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역사인식에서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절의 서두에 “1592~1598년 전쟁에서 조선인민들은 일본침략자를 쫓아내고 祖國을 지켜냈다.” 라고 한 데서³⁷ 승리로 미화하기 어려운 호란에 관한 적절한 서술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력사(고급1)』에서는 ‘청나라의 침입’이라는 소절을 두었다. 서술은 간략하지만, 조선인민의 항쟁은 더욱 강조되었다. 정묘호란의 서술은 후금의 침입 → 조선인민의 용감한 투쟁 → 여진 침략자들의 화친 요구 → 조선량반통치자들의 수용 → 회군 과정에서의 자행된 약탈 → 황해도와 평안도 인민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요약된다. 매우 간략하지만, 오히려 1956년 및 1962년 『조선통사』의 해당 내용에 비해 한결 정리된 인상을 준다. 다만, 이어진 서술에서 “첫 번째 침략에서 아무런 소득을 보지 못한 女眞침략자들

35 조원래, 앞의 책, 38~40쪽.

36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조선력사(고급1)』(학우서방, 1972).

37 위의 책, 121쪽.

은 다시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정묘호란을 승전으로 묘사한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병자호란에 관해서는 ‘량반관료’들의 탐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틈을 타서 칭제한 누르하치가³⁸ 복종을 요구한 것이 발발의 원인이라고 했다.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이나 그 이후 청과의 관계는 전혀 서술하지 않고 “왕과 대신들은 애국적인민들의 힘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날 길만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면서 강화도의 함락 및 남한산성의 곤란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침략자들과 ‘화해’했다고 하였다.³⁹ 최종적으로는 “너진 침략자들은 비겁한 리조통치배들과 화해를 맺을 수는 있었으나 우리 인민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곧 제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⁰ 이 같은 서술은 전쟁의 승패나 결과를 따져보기보다는 지배층과 무관하게 인민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견해로 귀결되는 역사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조선통사(상)』(1977)의 병자호란 관련 서술 역시 소략하다. 제10장 ‘17세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의 제1절 안에 배치된 소절 ‘대외정세’에 불과 5쪽 남짓 설명한 것이 전부다. 이전 『조선통사』와의 차이점은 인조반정과 이괄의 반란 서술의 대부분을 그 앞의 소절인 ‘전후사회경제형편’에 두고 철저하게 북인(소북·대북)과 서인의 당쟁이라는 관점을 좀 더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대외정세’ 소절에서는 광해군대와 다른 서인들의 무지한 외교관을 설명하면서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⁴¹

병자호란에 관한 전체적인 서술은 임진왜란기 건주여진의 흥기 → 후금

38 이 책에서 ‘누르하치’라고 한 것은 흥타이지의 오기이다.

39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23~124쪽.

40 위의 책, 124쪽.

4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통사(상)』(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478쪽.

의 건국→심하전역→인조반정→정묘호란→병자호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의병의 활동에 관한 대목이다. 호란 관련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의병의 활동은 언제나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 점은 중앙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남한학계의 개설서와의 큰 차이점이다. 1977년판 『조선통사』에서는 의병활동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⁴² 이들의 활약 대부분을 승리로 묘사하다보니 언뜻 보면 정묘호란을 승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정묘호란 관련 마지막 문장이 “계속되는 패전으로 적들은 드디어 청천강이북지역을 강점해보려던 음흉한 기도를 버리고 완전히 쫓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조선 조정은 후금 침략자들과 화친했지만, 의병들은 이에 저항하여 투쟁을 지속했고 결과적으로 침략자들을 축출했다는 결론이다.

병자호란 때에도 인민들의 격렬한 항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철산의 운암산성에서는 청군이 인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참패’를 당했다고 기술하였다.⁴³ 남한산성에서의 항전도 그곳에 머물던 인조나 관료들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고 인민들의 용맹한 반격을 주로 부각시켰다. 그에 반해 국왕 일행이 강화도의 함락 이후 성문을 열었다는 등 지배층에 대해서는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의 행위는 ‘애국적 군민들의 영용한 투쟁’과 대비된 ‘반역행위’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매국배족행위’가 곳곳에서 봉기한 의병들의 항전의지마저 꺾어놓았다고 했다. 봉건 통치배들의 무능함, 안일함 및 그에 기인한 항전의 포기는 “나라와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왔다.”고도 했는데, 이는 세폐를 비롯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42 위의 책, 478~480쪽.

43 위의 책, 480쪽.

44 위의 책, 481쪽.

이 책에서는 병자호란의 결과도 다르게 해석했다. 전쟁이 끝난 뒤 각지의 의병들이 청군과 전투를 벌인 사실을 승전으로 서술하는가 하면, 1645년 청측에서 사신의 왕래를 간소화 하도록 한 조처 역시도 인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이끌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인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가 본질적으로 무역형식으로 전환되었다고도 했다. 인민들의 끈질긴 ‘반청저항’ 활동이 조선에 대한 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본 절의 결론이다.⁴⁵

이처럼 1970년대 병자호란 관련 북한의 역사서술은 지배층에 대한 비난과 인민들의 투쟁을 강조하는 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패전이라는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민들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서 그들의 격렬한 투쟁의 결과는 언제나 성과를 거둔다는 일종의 교훈적 기능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견해를 보인 『조선중세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퇴보한 면이 없지 않다. 윤색과 승리 위주의 과장이 두드러지며, 인민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대외관계사의 깊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되고 항쟁사적 색채만 짙어졌다.

이 같은 서술 경향은 1980년대에도 이어졌다. 일례로 1982년에 출간된 고등중학교 4학년용 『조선력사』에서는 인민들의 저항, 의병 활동이 조선에 대한 청의 강압일변도를 무산시켰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⁴⁶ 병자호란 서술은 불과 3쪽이지만, 인식은 오히려 선명하다. 본서의 설명에 따르면 왕과 봉건 통치배들의 굴욕적인 화의에도 불구하고 격분한 인민들은 저항을 계속했고, 이렇게 세찬 투쟁은 청나라침략자들로 하여금 조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⁴⁷ 병자호란을 ‘승전’으로

45 위의 책, 482쪽.

46 립학선 외,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4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1982), 51~53쪽.

47 위의 책, 53쪽.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군신관계에 입각한 조·청관계의 성립 대신 화의(和議) 이후에도 이어진 인민들의 투쟁이 조선의 자주적 면모를 수호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총 33권 규모로 출간된 『조선전사』는 주체사관에 입각한 북한역사학계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저술과는 달리 병자호란에 관한 서술도 방대한 편인데, 내용 면에서도 주목할 지점들이 적지 않다.

『조선전사』 10권의 병자호란 서술은 80쪽 정도로 각각 '17세기 전반기의 국내외정세', '외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제목이 붙은 1장과 2장에 걸쳐 있다.⁴⁸ 본서의 머리말에는 “조선인민은 17세기에 도 외적의 침략과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사회적생산과 과학, 문화를 발전시켜나갔다.”고 규정하고 “우리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문제는 두 차례에 걸치는 청나라침략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적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조선의 인민들이 갖은 난관을 이겨내며 치열한 의병투쟁을 벌여서 침략자들을 물리쳤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한다.⁴⁹

1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의 피폐한 현실과 사회정치질서의 문란, 당쟁을 설명하면서 봉건 지배층의 그릇된 태도와 인민들의 시련을 서술했다. 특히 당쟁에 대한 설명은 병자호란의 서두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는데, ‘료동출병’ 즉 심하전역(1619)의 출병 문제에서 그 해독이 드러났다고 한다. 리조봉건 통치배들은 협력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임진왜란의 상흔을 치유해야 했지만 당파적으로 분열된 그들은 명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후금의 조선 침략을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도는 병자호란의

4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앞의 책(1980), 5~93쪽.

49 위의 책, 5쪽.

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척화론과 주화론의 대립을 예로 들었다.⁵⁰ 지배층의 이 같은 자기분열이 결과적으로는 국력의 약화를 야기했다는 의미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군사제도의 개편을 들었는데, 선조~인조대에 집중적으로 창설된 중앙군영과 지방 속오군은 각각 정권의 보위를 위한 사적 군사기반 및 양인과 천인을 아울러 수탈하려는 수단으로 치부되었다.⁵¹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의 집권층은 사적 이익의 추구, 명에 대한 과도한 사대주의, 군권의 오용 등을 자행함으로써 외침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킨 장본인이었다.

1장의 2절부터는 대외항쟁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여기부터는 서술이 전에 비해 구체화되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대외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기울인 노력이 느껴진다. 먼저 세키가하라 전투(1600)를 통한 일본의 정권 교체 및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마도와의 교섭 재개를 기유약조(1609)는 물론 1617년, 1624년, 1636년의 회답사 및 통신사 파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했다.⁵² 이어서 명·청교체라는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도 서술을 시도했다. 명의 쇠락, 여진의 흥기라는 익숙한 틀이 북한에서는 이 무렵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된다.⁵³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료상 확인되는 지점들을 열거한 것에 가깝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후금의 건국 이전 팔기제(八旗制)의 성립을 거론하는 등 이전보다 세밀한 내용 검토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지점들이 여럿 확인된다.

또 하나의 뚜렷한 현상은 후금의 건국으로 인해 촉발된 조선·후금·명의 복잡한 관계 형성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침략과 투쟁의 이분법적 선악구도

50 위의 책, 19~20쪽.

51 위의 책, 20~29쪽.

52 위의 책, 30~35쪽.

53 위의 책, 35~37쪽.

를 고수하던 데서 나아가 국제관계의 다기한 면모를 내보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하전역을 앞둔 조선 내부의 출병 문제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는데, 광해군과 관료들이 모두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를 강조했다고 오해하는 등 사실 관계의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⁵⁴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혹은 양단외교를 했다는 프레임 대신 명과 후금이 모두 조선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는 출병 논쟁이 명분-실리의 견해차에 따른 내부 논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과 후금의 현실적인 관계 및 교섭과 직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⁵

심하전역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이전까지 심하전역의 서술은 출병한 사실만을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조선전사』에서는 동로군에 편입되어 행군하는 과정에서 치른 전투를 꽤 자세히 다루고 패전이 가져온 여파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전사』에는 료동출병론의 필연적 산물이면서도 광해군일파가 대외관계에서 중립정책을 고수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한 것이다.⁵⁶ 이는 광해군과 비변사 관료들의 견해차를 무시한 것으로 상당한 오해를 안고 있는 서술인데, 지배층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하전역 이후 명·후금과의 교섭, 모문룡의 입국에 대한 상세한 서술 등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⁵⁷ 특히 모문룡과 후금의 갈등이 조선에 미친 악영향을 설명한 부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후금의 침입이라는 이전까지의 단순한 정묘호란 서술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의

54 위의 책, 38~40쪽.

55 위의 책, 40쪽.

56 위의 책, 41쪽.

57 위의 책, 42~43쪽.

출병 원인에 대한 논쟁을⁵⁸ 고려하면 전쟁은 침략자인 후금과 피해자인 조선으로 단순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성의 보수, 군량의 마련, 만과의 선행 등 조선의 군사정책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가한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다만, 광해군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다소의 혼란이 보이는데 지배층을 아울러 비판할 때는 사대주의로 치부하고 심하전역 이후의 정책은 ‘중립적 태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⁵⁹ 후자의 경우 인조반정의 발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이는데, 당쟁과 연관시키면서도 이전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이어가는 점이 흥미롭다.

『조선전사』의 병자호란 서술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경향은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들이 송명사대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등 명나라에 대해 굴종과 아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⁶⁰ 이는 결과적으로 후금을 자극, 정묘호란을 자초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 책에서는 인조정권이 망해가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고수하고 강성해진 후금을 홀대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취한 반면, 내실 있는 군사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학계의 통설과도 비슷하다.⁶¹

제2장에서는 호란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이 시작된다. 여기부터 계산하면 약 40쪽에 걸친 분량인데,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후금의 침입과 관련해서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의 집권이 조선에 대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는 서술이 눈에 띈다.⁶² 이는 배후의 위협을

58 최근의 연구로는 계승범, 「정묘호란의 동인 재고」, 『溯上古典研究』 71호(2020)가 있다.

5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앞의 책(1980), 43쪽.

60 위의 책, 45쪽.

61 위의 책, 46쪽.

62 위의 책, 48쪽.

제거한다는 군사적인 목적과 새로운 교역로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고 한 부분이나 군사작전 실행의 직접적 이유로 모문룡의 존재를 거론하는 점 등과 아울러 정묘호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에 깊이가 더해졌음을 보여준다. 누르하치, 홍타이지 등 후금의 정권 이양과 무관하게 침략과 저항의 구도로 단순화 한 이전의 서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묘호란 초기의 전황에 대한 해석에도 달라진 부분이 감지된다. 의주에서의 항전을 강조하면서도 미연에 이를 감지하지 못한 사실을 아울러 적시했다. 또 후금군이 길을 나누어 모문룡을 공격한 사실도 꽤 자세히 기술했는데 이는 이전의 저술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대목이다. 즉, 능한산성과 안주성에서 조선인민들이 영웅적으로 항전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전쟁의 국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⁶³ 능한산성과 안주성의 함락이 지휘관의 무능에 기인한다는 서술이나 그와 대비된 인민들의 격렬한 항전은 더욱 강조되었지만 적어도 조정 차원에서 안주를 핵심 방어거점으로 육성해왔다는 서술을 가미한 점은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조선 조정의 대응책도 일부나마 서술되었다. 주로 도체찰사를 비롯한 직책의 임명을 언급한 데 그쳤고 또 강화도로 도주한 무책임한 조정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호소사를 각 도에 파견한 점, 근왕병을 소집한 점 등도 언급했다.⁶⁴ 화친 교섭에 대한 서술도 추가되었다. 이전까지 의병 활동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느라 서술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화친 국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중대한 오해를 했는데, 조선이 화친을 요청했다고 한 부분이다. 실제로는 후금 측에서 철병의 조건으로 국서(國書)를 요구하면서 화친을 먼저 제기했다. 조선이 이를 수락한 것 자체도 타협적인 자세였지만, 누가 먼저 화친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오해는 뚜렷하다.

63 위의 책, 48~49쪽.

64 위의 책, 50~51쪽.

『조선전사』에서 조선이 먼저 화친을 제안하고 후금이 수락한 것으로 서술한 이유는 분명하다. 의병의 활동이 후금 측으로 하여금 화친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1월부터 시작된 청천강 이북 지역 인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후금이 화친 제의를 받아들인 게 되었다는 전제를 가진 서술이다.⁶⁵ 이 부분의 오해는 부정할 수 없지만, 후금 측에서도 전쟁의 장기화를 꺼렸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참고할 만하며 명나라의 개입을 우려했다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인민의 의병 투쟁 역시도 강조되었다. 각종 읍지(邑誌)들을 근거로, 이전 보다도 많은 의병진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특히 청천강 이북 의병의 활동에 대해 “투쟁의 지구성과 완강성, 견인성에 있어서 이 시기 의병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의주, 룡천, 철산, 선천, 광산 등 청천강 이북 지역들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쫓기하여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다.”는 평가는 호란에 대한 북한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듯하다.⁶⁶ 중앙 조정의 무력한 화친 제의-비록 이는 서술상의 오류지만-와 대비된 인민들의 집요하고 격렬한 의병 활동을 강조한 것은 이전의 저술에서부터 드러난 북한학계의 특징이다. 무려 13쪽(52~64쪽)에 걸친 청북 지역 의병의 항쟁은 분명 참고할 만한 점이지만, 결과를 포함한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의병의 항쟁 일부는 모문룡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도 한계이며, 아울러 1627년 8월 의병진의 와해와 그에 따른 후금군의 완전 철수 이후 청천강 이북 지역이 사실상 모문룡 휘하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역사적 사실도 간과했다.

정묘호란 이후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항쟁사의

65 위의 책, 51~52쪽.

66 위의 책, 55쪽.

전형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이전의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전사』 역시 10년 동안 지속된 조선과 후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관계사의 측면에서는 파탄에 이르는 지점을 지적할 뿐이고, 병자호란 때도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원인을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였다. 또한 청천강 이북에 대한 포기를 두고 지배층을 ‘배족적, 투항주의적 망설’이라며 격하게 비난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해당 지역에 횡행하던 동강진(東江鎭) 소속 군사들의 폐해에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조선과 후금, 명 관계의 입체적 규명 그리고 명과 동강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된 결과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항쟁사적 구도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병자호란 전야의 군사정책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전사』에서는 조선의 지배층이 도성 인근의 방어체제에 주력하고 서북지방의 대비는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청북에 대한 수복론이 일어나면서 1633년에 신설된 청북방어사와 뒤따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만 서술했다.⁶⁷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지배층의 책동은 조정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공이 가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병자호란의 발발에 대해서는 정묘호란 이후의 불안정한 관계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강성해진 후금의 칸(汗) 홍타이지가 칭제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다고 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도 청군의 파죽지세 가능성은 서북지역에 대한 관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⁶⁸ 이는 도성 인근에 방어력을 집중시킨 지배층에 대한 반발이지만, 평안도와

67 위의 책, 69쪽.

68 위의 책, 71쪽.

황해도의 산성입보책(山城入保策)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기도 하다. 남한 산성이 포위된 상태에서의 전황에 대한 서술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남한산성에서 출동한 조선군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한 작전을 침소봉대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전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남한산성의 외곽에서 진행된 각 지방의 근왕군이 벌인 전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남한산성 안에서 전개된 척화·주화의 논쟁을 다룬 것은 주목된다. 이전에는 강화도의 함락에 이은 항복이라는 구도로 서술되었으나, 『조선전사』에서는 그 갈등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했다. 흥미로운 점은 척화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데, ‘애국적군인’과 한 데 묶어서 ‘정당한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주화론자들의 의견은 ‘투항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⁶⁹ 투항주의자측, 주화론자들의 의견은 ‘배신적책동’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투쟁을 원하는 애국적군인들의 기개와 대비된다고 하였다.⁷⁰ 그러나 시기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강조하다보니, 강화도의 함락 이후 저항을 보이콧하기까지 했던 병사들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본서의 결론은 또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지배층의 비겁한 패배주의, 문치주의와 그에 입각한 무신의 차별은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의병투쟁은 이어졌다는 것이 『조선전사』의 설명이다.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의병 활동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화친이 성사된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한다.⁷¹ 『조선전사』에서는 인민들의 의병활동을 ‘애국적헌신’, ‘영웅

69 위의 책, 76쪽.

70 위의 책, 75~76쪽.

71 위의 책, 79~80쪽.

성'으로 표현했으며 국가의 명예와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자호란을 국가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명·청과의 관계 재편으로 보지 않고, 인민들의 간단없는 항전사로 기술한 것이다.

IV. 맺음말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북한의 주체사관이 구축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1970)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 기술 혁명과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를 당면과제로 내걸면서 역사서술에도 주체사상이 적용되었다. 여기서 비롯된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여기고 자주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곧 인류역사로 여기는 개념이다. 주체사관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역사서술은 『조선전사』에서 일단 구현되었다. 이를 통해 1950년대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계에서 동시에 전개되던 대외항쟁사의 서술 방향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반침략투쟁사에 집중한 대외관계 연구 경향은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까지 남한학계에서는 대외관계의 외연을 확장하고 연구 분야를 다양화 했던 반면, 북한에서는 대외항쟁사적 구도가 고착화되었다. 특히 수·당 제국에 대한 고구려의 항쟁이나 거란·몽골에 대한 고려왕조의 항쟁, 조선시대의 임진조국전쟁은 북한 대외관계사의 주류를 점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한정해서 보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균형감 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야 다양하지만, 인민 주도의 항쟁과 승첩에 초점을 둔 서술을 통한 국가의 자주권 수호 등을 강조하기에 전자는 적합했던 반면 후자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병자호란 연구 역시 꽤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 임진왜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침략과 항쟁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구도에 입각한 서술, 최종적으로 승리로 규정지를 수 있는 결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1950~1960년대와 1970~1980년대 북한의 병자호란 서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먼저 항쟁사적 서술이 극복되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 갇히는 현상이었다. 박시형의 저술에서는 기존의 만주 관계 연구 성과들이 꽤 많이 포함되었지만, 196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조선 인민의 영웅적 항쟁이 부각되고 관계사 분야에 대한 서술은 위축되었다.

대외항쟁사 역시 대외관계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만 묘사되었다. 그 결과 전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 평화적 시기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에 대한 부분은 도외시되었다. 상대국을 적국, 침략자로 규정하는 인식 안에서 객관적인 대외관계의 연구는 요원했다.

임진왜란과 비교했을 때, 병자호란에 대한 서술은 오히려 비중이 작아졌다. 인민의 투쟁에 따른 승리라는 결과를 서술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구체적인 서술에서 병자호란은 인민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승리보다는 그것이 얻은 성과에 집중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즉,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병자호란은 청에 굴복한 것이지만 인민들의 집요하고 격렬한 반청투쟁으로 인해 국가의 자주성을 수호해낼 수 있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1970년대 이후의 저술에서 두드러졌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서술은 박시형의 서술에서 오히려 퇴보했다.

북한 역사서의 병자호란 서술은 내용상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인민의 항전을 설명할 때 과도한 지면을 할애하다보니 조선 정부와 후금·청의 공식 혹은 비공식 교섭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조선이 내세운 대의명분과 현실적인 타협이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해석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배층과 인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다보니 혼선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광해군은 신료들과 함께 사대주의를 추구했던 인물로 묘사되다가도 반정으로 그를 몰아낸 인조반정은 '이전과 달리' 송명정책을 견지했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광해군이 대명의리라는 정론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후금과의 기미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외교를 진행했다는 남한 학계의 통설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의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항쟁의 비중이 큰 점도 특징이다. 북한의 병자호란 관련 역사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정묘호란시 청천강 이북에서 전개된 의병 활동이다. 따져보면 후금의 침입부터 화친에 이르는 기간은 2개월 남짓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청북 지역에서의 항전은 화친 이후에도 무려 5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남한 학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민들의 투쟁에만 집중하다보니 청북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한 모문룡 등의 명군이 그들과 연계된 점 등은 철저히 무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쟁의 종식에 결정적인 계기였던 맹약(盟約)이라는 의례의 설행이나 그때까지의 교섭 과정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때 촉발된 조선 조정의 척화·주화의 논쟁도 간과되었다. 이러한 서술상의 불균형은 향후 10년간 지속된 조선·후금 국교의 출발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정묘호란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키고 대외항쟁사의 틀 안에 가두게 되는 본질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다.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의 항전에 서술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강화도의 함락에 이은 조선 조정의 굴복이 인민의 투쟁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서술되기도 했다. 화친 교섭에 나타난 정교한 논리 싸움, 미묘한 상호타협의 분위기 등은 서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애초부터 화친 교섭을 무능하고 탐욕적인 지배층의 ‘매국배족(賣國背族)’ 행위로 여겼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병자호란이 조선과 청의 관계 수립의 계기이며 향후 250년 이상 지속된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

‘반외세’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명나라의 역할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대명(對明) 외교는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 침략과 투쟁의 구도 안에서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묘호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은 명·후금과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외교했다. 또 명 황제 혹은 조정에 대한 의리론과 현실적인 접촉 상대였던 요동·산동과의 관계는 결이 달랐다. 하지만 항쟁사의 구도로 병자호란 서술을 이어가는 이상, 이러한 현실정치의 면밀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북한의 대외관계사 서술에서 대외항쟁사가 주를 이루면서도 전후의 외교관계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게 된 주요 원인을 여기서 찾아도 무방하다.

이렇듯 병자호란 관련 북한의 역사서술은 많은 문제를 노정한다. 대외항쟁사 연구의 출발점은 같았지만,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주체사관은 이 같은 프레임을 박제화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특히 대외항쟁의 결과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병자호란에 대한 역사서술은 답보 상태로 머물렀으며 인민의 투쟁이 가져온 ‘성과’에 적극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퇴보하기도 했다. 퇴보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분석했듯이 『조선전사』에서

는 양적인 서술의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본서 전체의 분량 증대에 따른 것이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의 열거를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끄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정훈부 편, 『대외항쟁사』. 서울: 국방부 정훈부, 1954.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의 역사학(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_____, 『한국사』 2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 _____,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4)』.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 金鍾權, 『國難史概觀』. 서울: 明文堂, 1957.
- 稻葉岩吉,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京城: 大阪屋號書店, 1933.
- 림학선 외,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 박시형, 『조선중세사(하)』. 평양: 국립출판사, 1956
- 박영해·문병우·김재홍, 『평양의 반침략투쟁사(리조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통사(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_____, 『조선전사』 10.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양형섭,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에서의 인민의병투쟁』. 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57.
- 李仁榮,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54.
-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 개의 역사학: 개설서로 본 남북한의 역사학』. 서울: 소나무, 2001.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조선통사(상)』.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1956.
- _____, 『조선통사(상)』.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1962.
- 조원래,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5.
-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조선력사(고급1)』. 평양: 학우서방, 1972.
-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3.

2. 논문

계승범, 「정묘호란의 동인 재고」. 『泐上古典研究』 71호, 2020, 247~279쪽.

박찬홍, 「북한 <조선력사>(상)(1963) 교과서의 대외관계사 서술 검토」. 『白山學報』 119호, 2021, 171~194쪽.

이준성, 「1950~60년대 <조선통사(상)> 간행과 북·소 역사학계 갈등」. 『사학연구』 137호, 2020, 7~48쪽.

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호, 2016, 161~211쪽.

鄭杜熙, 「북한의 역사서술에 나타난 조선왕조의 유산」. 『東亞研究』 34호, 1997, 159~177쪽.

국문초록

이 글은 주체사관의 적용된 1970~1980년 북한의 주요 역사서에 수록된 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시기 북한 역사인식의 한 단면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대외항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대외관계 역사서술은 방향성 면에서 남한의 그것과 유사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주체사관이 역사서술에 본격적으로 구현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분야의 역사서술은 '반침략투쟁사'로 고착화되었고 침략 투쟁의 이분법적 선악구도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퇴보했다. 이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의 대외항쟁사 서술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병자호란'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이 무렵 출간된 북한의 역사서에서는 병자호란 당시 인민의 반외세적 투쟁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면서 서술이 단조로워졌고, 현재 북한 지역의 의병 활동이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투쟁을 중앙 정부의 사대주의와 구분하여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하면서 패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서술은 대외관계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좁힘으로써 건설적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투고일 2022. 3. 26.

심사일 2022. 4. 18.

게재 확정일 2022. 5. 3.

주제어(keyword) 병자호란(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주체사관(Historical Viewpoint of Self-reliance), 조선통사(The Synoptic History of Korea), 조선전사(The Whole History of Korea), 역사서술(Historical Narratives), 대외항쟁사(History of Foreign Resistance)

Abstract

North Korean Historical Narrative and Recognition on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1636 in 1970~1980

Jang, Jung-so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based on historical viewpoint of self-reliance in the history books published during the 1970~1980's in North Korea. From 1950s to mid-1960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cholarship narrated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history of resistance against foreign power, where it showed a similar tendency to the South Korean historiography at the time. However, after adopting the Juche, or the Self-Reliance, ideology as the historical view, the narrative in history of foreign relations illuminated the 'history of struggle against the foreign invasion', creating the dichotomous structure, where good people resisted against the evil invaders. The same situation is found in the historical narratives of foreign relations on the Joseon dynasty, and this trend became particularly apparent in the studies on First and Second Manchu invasions alike. In North Korean history publications in 1970~80s,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gainst the Manchu invaders was emphasized and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armies raised by commoners in the region of current North Korean territory was magnified. Further more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was dissociated from the diplomatic policy of the feudal government and semanticized as a positive accomplishment, distorting the historical fact that they were defeated by the Manchu invaders. This narrative of history narrowed the width of interpretations on the history of foreign relations, thus creating an environment difficult for providing constructive discussions.

